

청소년의 예 리더십(禮 Leadership)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anner Leadership on Happiness of Adolescents

김경아(Kyoung A Kim)

Sookmyung Global Leadership Institut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oncept of manner leadership for adolescents based on the manner of the East and leadership of the West. Also, it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anner leadership on happiness of adolescents. For this, manner leadership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empirical study, in-depth interview,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sub-dimensions of manner leadership consisted of time management, academic performance, goal attainment and citizenship behavior, communication, family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image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The data were obtained by administer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to high school students residing in Seoul. Statistical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SPSS and AMO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adolescents' manner leadership tended to be more than average. In addition, they were good at image management but time management was absolutely lacking among the sub-dimension of manner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it appeared that the adolescents' happiness level was lower than the manner leadership. Second, the result of the study was that the manner leadership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ppiness of adolescents. Finally, happiness of adolescents was affected on these variables, such as grade, self-efficacy, emotional intimacy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time management, goal attainment, communication, and family relationship.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manner leadership programs for enhancing happiness for adolescents would be developed.

주제어(Keywords) : 예(manner), 리더십(leadership), 행복감(happiness)

I. 서론

행복(happiness)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동시에 인내의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잦은 외침과 전쟁 등으로 어려운 난국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근면과 성실의 민족적 정서와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매우 취약하며 오히려 미약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최근 보고[54]는 기성세대와 청소년 모두에게 많은 우려를 시사한다. 개인주의적·물질만능주의적 사고의 팽배, 유해환경의 만연에 따라 폭력, 왕따, 사이버 중독, 가출, 음주, 우울증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Corresponding Author : Kyoung A Kim, Sookmyung Global Leadership Institut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eongpa-ro 47-gil 100,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Tel: +82-2-710-9899, Fax: +82-2-2077-7126, E-mail: kakim@sm.ac.kr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32-C00011).

자 최근 입시 및 취업 시 인성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부언하면 다양한 청소년 부적응의 원인이 그동안 지식중심의 편중된 교육정책에 있다는 반성 아래, 향후 바른 품성과 인격을 지닌 전인적 교육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참다운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인성적 교육이 바로 청소년의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교육의 반영일 것이다.

21세기 차세대 리더는 강인한 내적 확신을 바탕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줄 아는 주도적인 인재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부재현상을 극복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국적 정서에 토대를 둔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33].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에 발맞추어 가정학 계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 인성에 대한 화두로 학회를 개최[40]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가정환경 내에서 발달한 우리나라의 가장 비중 있는 인성교육은 예(禮)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예절교육은 스마트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의 교육 요구도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차세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인성역량이라는 생각보다는 과거의 진부한 문화 산물이라는 편견을 일부분 낳고 있다. 이에 인사나 의례 중심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가시적인 명목상의 교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예 문화(禮文化)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인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학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문간 교류를 통해 새로운 창의적, 실용적 가치를 창조하는 융복합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가정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인성교육인 예의 패러다임과 경영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서양의 인성역량인 리더십을 접목하여 통합된 '예(禮) 리더십(Leadership)'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실제 예절과 리더십교육은 각각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강화 교육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절과 마찬가지로 리더십 교육 또한 교육적 성과를 감소시키는 현실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양적 사상에서 비롯되어 그 대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정립되어 온 까닭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서나 환경이 적절히 수용된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며, 로열티 지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청소년리더십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교육관련 학자와 정책실무자 및 실제 교육현장에서 예절과 리더십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대표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는 동양의 예절과 서양의 리더십 간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교육적 콘텐츠를 병합하여 청소년 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학제적 개념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예절바른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적 비전 아래 예(禮)라는 가장 한국적인 학문적 토대 위에서 차세대 대한민국의 리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역량함양이 곧 행복을 유도하는 기저가 됨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역기능적 현상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해결하는 병리적 접근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 올바른 품성을 지닌 전인 인력의 양성이란 순기능 차원의 연구로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실천적 학문인 가정학 계에서 교육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미래 인재양성의 키워드를 모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예(禮)와 리더십(Leadership)

리더십은 초기 '리더는 타고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생득적 관점 하에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등의 개념적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일방적인 상하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승-승 할 수 있는 상호관계의 효율성이 검증되면서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창의적 리더십 등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이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즉 리더십은 타고 태어나는 능력이 아닌 누구나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역량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는 특정 리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환경을 초월하여 누구나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 리더십의 연구는 조직 내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경영학의 관점을 뛰어 넘어 아동학, 청소년학, 간호학, 가정학, 교육학 등 인간을 다루는 모든 학문영역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이상의 신조류 리더십 패러다임은 각각의 개념 및 배경적 접근은 상이하나 전(全)방향의 상호호혜적인 개념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전이기에 있는 청소년기 리더십은 과정이지 결코 지위가 아니므로, 모든 청소년이 리더십 잠재력(leadership potential)과 능력(abilities)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미계발된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하더라도 스스로를 절제하고 타인들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으로서도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리더십과 관련한 발달과정은 크게 실제적 부분

과 이론적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실제적인 측면에서 청소년기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론칭 되었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대인관계 차원에서 접근한 한국리더십센터의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테일 카네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YBM리더십아카데미의 '청소년 리더십 캠프', 숙명리더십개발원의 '봉사와 리더십',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 'S Leadership Youth Camp', 안보의식과 연결한 '주니어 ROTC 리더십 캠프' 등이 있다. 그 외 전 세계 글로벌리더와의 만남을 제공하는 'LG-IVI 사 이언스 리더십',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한 미국의 '4-H After-School Activity Program (4-H ASAP)'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이어졌는데, 자기이해·학습능력·의사소통·인간관계·의사결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26], 봉사활동과 연계한 청소년의 시간관리 능력함양[3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리더십 역량을 다른 관련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한국형 리더십생활기술의 척도가 발표[8]된 이래 문제행동[3],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애착[20] 등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을 사용하여 학업효능감[57], 진로준비행동[49], 예절수행과 학교생활적응력[33] 등과의 연구가 접목되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는 주로 리더십생활기술이나 셀프리더십 등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비해 리더십 프로그램은 자녀를 리더로 키우고 싶은 부모의 열망과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가례집람, 격몽요결, 사례편람, 여성교훈서 등의 예서(禮書)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의 위상에 걸맞은 고유의 예절문화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청소년 예절과 관련된 연구는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 실태[22] 혹은 프로그램 요구도 [17] 및 효과성[55]을 밝힌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예절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여성교훈서인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청소년 예절교육을 분석[44]하거나, 다양한 관련변인과의 맥락 속에서 예절수행을 촉진시키는 우호적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예절과 또래관계[25], 가정생활건강성[28]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행본의 형태로 예절 및 매너, 에티켓 등 관련저서가 끊임없이 발간되어 예절학의 일반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주지해 볼 일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예절수행은 개인 내적요인과 더불어 가정적, 사회적 요인 등의 환경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예란 인간으로서의 자기관리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규범[23]이며 활기찬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윤희유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약속[28]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예절교육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최근 업무적인 직무능력 보다는 인성적 측면에서의 바른 예절이 성공을 가는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의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도덕성 발달과 가치체계가 정립되는 중요한 결정적 시기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습득된 예절수행은 평생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인성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리더십과 예절은 동서양을 대표하는 인성적 역량으로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전인적인 인재상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절바른 리더의 탐색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인 예절의 토대 위에 서양에서 발달한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접목시킨 한국형 리더십 패러다임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란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서양사상의 답습보다는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배어있는 리더십의 역량함양이 전제될 때, 가장 세계적이며 가장 한국적인 리더양성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이 두 변수의 접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유가사상(儒家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동양의 예는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기능을 갖는다. 먼저 수기란 스스로의 사람다움을 지니기 위한 것으로 자신에게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다(對內對自的作備). 이는 자기관리의 본질로서 절제를 의미하는 공자의 인(仁)사상과도 합치된다. 두 번째 치인은 남과 함께 지내는 대인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자기내면을 다스리던 정성스런 마음을 타인을 대할 때도 똑같이 활용하여 타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對外對他的作用)[23]. 한편 서양에서 비롯된 리더십의 연구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나 공통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역량 함양을 위한 셀프리더십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관계리더십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Covey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자기관리(self-management)로서 비전 및 목표 수립, 시간관리, 역할수행 등의 내용을, 또한 타인과의 관계성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 타인들과의 조화로운 시너지 창출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11]. 이를 통해 볼 때 두 개념은 각각 기원이나 배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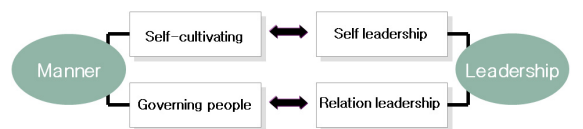


Figure 1. Theoretical linkages between manner and leadership.

달리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관리와 타인존중의 근본 정신이 일치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성공을 위하여 먼저 자기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심김 리더십의 이론[5]과 치인에 앞서 수기를 전제[56]로 하는 예의 사상이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즉 생각과 언어 및 행위와 같은 모든 면에서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후 원만한 대인관계가 가능하다는 궁극적인 가치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와 리더십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나 예절은 마음만 있어서는 완성되었다 할 수 없으며 인간의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합리적인 생활규범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의 역량을 바람직한 예절의 형식을 빌려 완성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예 리더십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수행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와 공경으로 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지키려는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바르게 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부드러운 힘의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행복감

고대 철학에 그 기원을 둔 행복연구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창시자인 Seligman의 연구를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해 현재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의 관심이 되고 있다[53]. 행복이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겪으면서 느끼는 역동적인 감정[16]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이며 긍정적 측면에서 삶의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특징을 지닌다[36].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50]로, Bradburn은 개인이 체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비교하여 얻어지는 전반적 평가로 정의 내렸다[6]. 종합해 보면 행복이란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경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의 용어와 혼용되며 발전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인간발달주기상 행복감의 유지가 중요하나 특히 청소년기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업 및 미래에 대한 부담감,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또래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제 문제들로 인해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특히 부정적 감정의 완화나 소멸은 긍정적 감정의 생성을 촉진하지 않는데 비해 긍정적 감정의 증진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데 효과가 있음[15]

을 고려할 때,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증진은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는 청소년기 적응에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연구의 기초체계를 확립한 Wilson은 연령, 건강, 교육정도, 결혼, 종교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외향성, 낙천성, 자기존중감, 의욕, 포부수준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59]. 이후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객관적인 외적 조건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기준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2]는 견해에 가중치가 실리면서 점차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방법은 행복감이 일상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상향이론(bottom-up theory)과 경험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내적 경향성과 관련이 높다는 하향이론(top-down theory)이 제시된 바 있다[10]. 이후 행복연구는 상향적 접근방법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외적환경과 내적요소로 분리하기 보다는 성격특성과 삶의 여건 간의 상호작용 영향을 받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통합적 설명모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41]. 부연하면 행복은 제시된 여러 요인들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행복은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을 거친 심리적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그 일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행복을 이끄는 공통된 특성은 무엇일까? 현재까지 유의하게 나타난 관련변인들을 개인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개인적 측면의 관련변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행복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12, 19]. 또한 낙관적인 성격[1], 학업성취도[34], 인생의 목적의식[41], 경제적 안정[7] 등도 행복에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반면 관계적 측면에서는 행복한 개인은 그렇지 못한 개인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8]. 즉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만족스런 생활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관련 요인[19]이 청소년의 행복감 상승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즉 독립적인 삶과 생존 그리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달리 집합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36]. 이처럼 행복에 관한 연구는 문화적 맥락에서 가치관과 욕구 및 동기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 행복감을 구성하는 요인을 밝히려는 일련의 연구들[37, 52]과 행복감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14]가 시도되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행복의 조건은 다양하나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행복지수가 상승될 수 있으므로, 향후 청소년들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속에 행복의 교육과정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 연구문제 1 > 청소년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변인, 심리적변인)에 따라 예 리더십은 차이가 있는가?
- < 연구문제 2 > 청소년의 예 리더십과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 연구문제 3 > 청소년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변인, 심리적변인), 예 리더십 및 행복감과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

1) 예 리더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문헌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면접 그리고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예 리더십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완성된 총 9개 영역 5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예 리더십 척도의 개발 및 연구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헌고찰

기존의 예(예절, 매너, 기본생활습관, 에티켓, 서비스 등)와 리더십(셀프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 역량, 리더십 생활기술, 창의적 리더십, 이슈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팀 리더십, 코칭 리더십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는 본 척도의 개념정리와 가설적인 하위영역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예 리더십의 두 가지 차원인 수기리더십과 치인리더십 부문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② FGI (Focus Group Interview)

한국적 정서에 토대를 둔 청소년 예 리더십(禮 Leadership)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념설정과 예비문항의 수집과 선정을 위하여 표적집단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특히 탐색적 연구에 유용하며, 조사 질문지의 문항개발이나 검토, 지역사회외의 요구사정,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검토, 그리고 변화에 대한 반응 평가 등에 주로 사용된다[48]. 포커스 그룹은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네 명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양해를 구한 후 면담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원활한 진행과 분석을 위해 석사 보조연구원이 녹음과 기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집단토론에서 녹취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예 리더십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텍스트 화하는 전사(transcripts)과정을 통해 정확한 내용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예와 리더십 간의 실증연구

위와 같이 개괄적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 후, 다음 단계로 예절과 리더십 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양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system approach)을 통해 각각 청소년 개인, 가족, 학교의 환경에서 예절과 리더십 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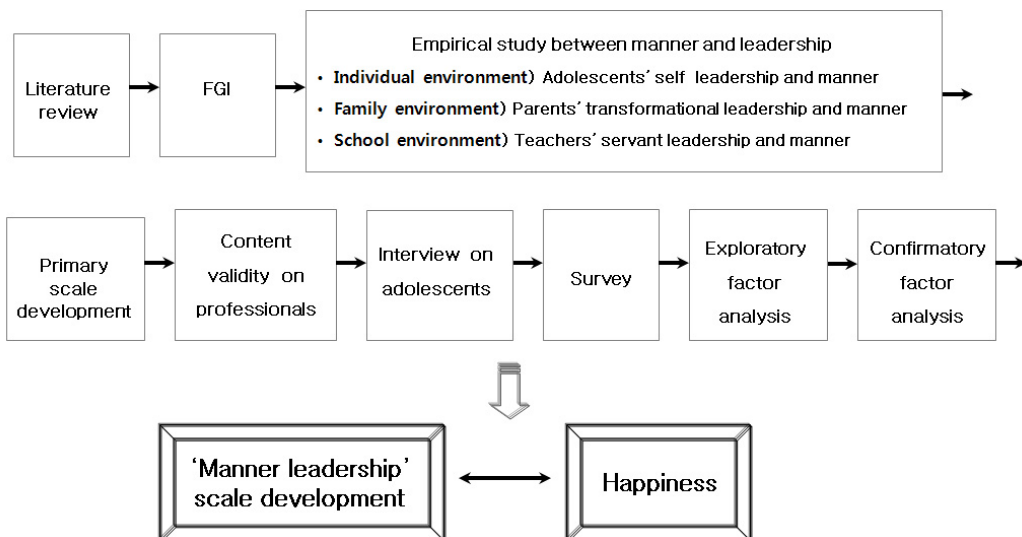


Figure 2. Measure development and research process of adolescents' manner leadership.

관련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차원에서는 청소년의 셀프 리더십과 예절 간의 관련성[33]을, 다음 가정차원에서는 부모의 변혁적 리더십과 청소년자녀의 예절수행 간의 관계[31]를, 끝으로 학교차원에서는 교사의 서번트 리더십과 청소년 예절수행 간의 연관성[32]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각각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이는 설문문항이 많을 경우 응답자의 집중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또한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자기표절에 대한 학문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다양한 리더십 척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우수한 예 리더십 척도의 문항선별을 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실증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예절과 리더십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결과는 가척도 시안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④ 예비문항 선정

척도개발을 위한 사전적 연구의 일환으로 축적된 기존의 예와 리더십 선행연구 자료를 근거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구성개념에 맞는 가설적인 하위영역과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예절바른 청소년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크게 수기리더십과 치인리더십 두 상위개념 하에서 각 5개씩 총 10개의 하위영역 가척도 100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수기리더십 차원에서는 자기수용, 목표달성, 시간관리, 학업수행, 시민행동을, 치인리더십에는 이미지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족관계, 사회관계, 갈등해결 등의 영역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⑤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검증

개발된 예 리더십 척도의 문항이 충분히 측정내용을 잘 담고 있으며, 또한 각 문항이 측정 영역의 정의를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전공자의 평정을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과 기성세대의 바람이 어우러진 예의바른 차세대 리더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를 만들기 위함이다. 전문가 집단은 청소년, 가정, 리더십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적절하지 않음~매우 적절함)로 체크하도록 의뢰하였다.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를 통해 질문내용이나 개념의 의미가 모호한 문항, 문맥상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문항 등에 대해서는 대안적 문항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모두 수렴하여 문항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문항 평균이 3.5이하이거나 표준편차가 1이상인 경우의 문항들을 삭제하여 2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⑥ 청소년 대상 개별 인터뷰

청소년의 문화적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동일집단인 청소년 여섯 명과의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 각 문항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문맥상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문항, 청소년의 상황이나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문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의 용어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예 리더십 척도가 청소년의 자기보고식(self-report) 응답방식을 요구하는 만큼, 문항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를 거쳐 본조사를 위한 최종 76문항을 확정하였다.

⑦ 설문배부 및 회수

최종 설문지를 인문계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총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지의 취지와 용어들의 개념을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후, 반별로 교사의 지도 아래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자기보고형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조사는 2011년 6월 21일~26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미회수 혹은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총 262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⑧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이론상으로 정립되지 않거나 경험 축적이 없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의 연구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귀납적 연구방법[24]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분석의 모형인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하여 초기 요인행렬을 얻었으며, 이에 대해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요인행렬의 각 요인을 단순구조에 맞도록 단순화시키는 방법[45]인 Kaiser의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실시하여 최종 요인행렬을 얻었다. 당초 수기리더십과 치인리더십 각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수기리더십 부문 중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기수용 영역이 삭제되었다. 또한 각 문항과 영역 총점 간 상관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거한 뒤에, 요인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기리더십 부분의 시간관리 6문항, 학업수행 7문항, 목표달성 6문항, 시민행동 5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치인리더십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5문항, 가족관계 8문항, 사회관계 5문항, 이미지관리 5문항, 갈등해결 5문항이 추출되어 최종 52개를 선정하였다. 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요인 1은 '나는 매일매일 그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나는 오늘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같은 목표

Table 1.
Correlation between manner leadership sub-areas

Factor	1	2	3	4	5	6	7	8	9	10
1. Time management	1									
2. Academic performance	.54**	1								
3. Goal attainment	.59**	.51**	1							
4. Citizenship behavior	.22**	.25**	.22**	1						
5. Communication	.27**	.41**	.40**	.29**	1					
6. Family relationship	.28**	.33**	.39**	.17**	.42**	1				
7. Social relationship	.27**	.38**	.42**	.72**	.60**	.50**	1			
8. Image management	.21**	.33**	.28**	.30**	.53**	.37**	.52**	1		
9. Conflict resolution	.28**	.39**	.43**	.27**	.59**	.43**	.55**	.48**	1	
10. Total	.62**	.73**	.72**	.46**	.71**	.69**	.72**	.63**	.69**	1

** $p < .01$.

달성을 위한 실제적인 실천전략으로서 해야 할 일의 우선순 위 결정이나 마감시한에 따른 수행능력 같은 내용으로서 '시간관리'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어떤 지식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시험을 보기 전에 준비가 완벽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편이다' 같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학습과 관련한 태도 및 열정, 습관 등의 내용으로서 '학업수행'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나는 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장래를 위한 나만의 계획(장기, 중기, 단기)을 세워 놓았다' 같은 장차 미래 사안에 대한 목표수립과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목표달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나는 공중도덕과 질서를 잘 지킨다', '나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같은 무단횡단, 줄서기 등 공중도덕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시민행동'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나는 간결하고 명명하며 조리 있게 이야기 한다', '나는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골고루 눈길을 보내면서 이야기 한다' 같은 타인들과의 조화로운 감정표현 및 대화스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커뮤니케이션'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6은 '나는 가족원들이 서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한다' 같은 주로 가족 간 비전과 공유감 및 상호신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가족관계'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나는 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타인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같은 타인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사고 및 친화력 등을 내용으로 하며 '사회관계'라 명명하였다. 요인 8은 '나는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한다', '나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다' 같은 타인들과의 좋은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사하는 행태와 관련한 것으로 '이미지관

리'라 명명하였다. 끝으로 요인 8은 '나는 갈등 상황에서도 스스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많이 찾는다' 같은 갈등 상황 시 대처방법이나 해결방안 등의 내용으로서 '갈등해결'이라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청소년의 예 리더십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alpha = .94$ 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우선 수기리더십 부분 중 시간관리는 .83, 학업수행은 .86, 목표달성은 .88, 시민행동은 .74였으며, 다음 치인리더십 부분 중 커뮤니케이션은 .81, 가족관계는 .93, 사회관계는 .81, 이미지 관리는 .85, 갈등해결은 .80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문항을 중심으로 예 리더십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예 리더십 척도의 하위척도와 전체 점수 간, 각 요인 간에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각 영역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예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⑨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52문항의 9영역의 예 리더십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본 척도의 이론적 개념화가 지니는 실

Table 2.
Fit index of observed model

χ^2	df	p	Q	RMSEA	Delta 2	TLI	CFI
2349.773	1238	.000	1.898	0.059	0.829	0.814	0.826

Table 3.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 = 262)

Variable	Category	N	%	Variable	Category	N	%	Variable	Category	N	%
Sex	Male	168	65.1	Grade	1	115	44.6	Academic grade	High	47	18.3
	Female	90	34.9		2	143	55.4		Medium	138	53.7
Experience of leader	Exist	141	54.9	Experience of leadership education	Exist	128	48.9		Experience of propriety education	Exist	203
	None	116	45.1		None	134	51.1	None	82	20.7	
Mother's employment status	Exist	175	68.1	Father's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33	52.4	Mother's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65	65.0
	None	82	31.9		Above university graduate	89	47.6		Above university graduate	89	35.0

Note. The reason why the total of each variable is different is due to non response.

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9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모델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표준카이제곱치인 Q값(Normed chisq)이 3이하,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가 0.08 이하인 경우이면 모형의 적합성이 양호하다고 간주 [24]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각 1.898, 0.059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델타2와 비표준적합지수인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의 값은 .90보다 클 경우 모델과 자료가 잘 부합하는 것으로, .80과 .90 사이일 경우는 적당하게 부합한다고 간주한다[58]. 이에 근거할 때, 델타2 0.829, TLI 0.814, CFI 0.826으로 나타나 만족스럽진 않으나 최적모형의 적합수준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 행복감

행복감은 옥스퍼드 행복질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토대로 Hill과 Argle의 연구를 번안한 Kim[2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91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행복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s α),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지수,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AMOS 19.0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경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 65.1%, 여학생 34.9%로, 학년은 1학년 44.6% 2학년 55.4%로,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상 18.3%, 중 53.7%, 하 28.0%로, 리더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9%, 그렇지 않은 학생은 45.1%로 나타났다. 교육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리더십 교육을 받아본 학생은 48.9%인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51.1%로, 예절교육을 받아본 학생은 79.3%인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20.7%로 나타남을 볼 때, 예절교육이 일반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아직까지 리더십 교육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는 68.1%, 그렇지 않은 경우는 31.9%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학력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각각 아버지 52.4%, 어머니 65.0%로, 대졸 이상인 경우는 각각 아버지 47.6%, 어머니 35.0%로 나타났다.

Table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	Sub-dimensions	M	SD
Manner leadership	Time management	2.61	.76
	Academic performance	3.21	.76
	Goal attainment	3.20	.86
	Citizenship behavior	3.44	.75
	Communication	3.58	.75
	Family relationship	3.71	.84
	Social relationship	3.60	.68
	Image management	3.85	.67
	Conflict resolution	3.73	.66
	Total	3.43	.50
Happiness	3.39	.54	

Table 5. The level of manner 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Variabl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t/F	t/F		
a	Male	2.60	.78	3.20	.82	3.20	.91	3.43	.79	3.56	.80	3.72	.88	3.58	.73	3.89	.69	3.74	.70	3.74	.70	3.3	3.43	.54
	Female	2.60	.72	3.23	.68	3.22	.79	3.45	.67	3.62	.65	3.68	.75	3.60	.58	3.80	.63	3.71	.56	3.71	.56	3.3	3.43	.42
b	1	2.65	.79	3.34	.68	3.24	.79	3.66	.74	3.64	.77	3.58	.86	3.60	.75	3.84	.70	3.66	.70	3.66	.70	-1.39	3.46	.51
	2	2.65	.74	3.11	.82	3.17	.93	3.26	.72	3.54	.72	3.81	.80	3.59	.62	3.87	.66	3.78	.62	3.78	.62	-1.39	3.40	.49
c	High	2.77a	.11	3.66a	.11	3.43a	.12	3.38	.10	3.60	.11	3.61	.11	3.60	.10	3.73	.10	3.83	.11	3.83	.11		3.52a	.08
	Medium	2.65ab	.07	3.85*	3.27b	.06	20.89***	3.23b	.07	3.44*	3.51	.06	3.43	3.61	.06	3.32	.06	3.32	.06	3.32	.06	3.2	3.91	.08
d	Low	2.41b	.83	2.81c	.08	3.01b	.11	3.34	.09	3.34	.09	3.61	.10	3.54	.08	3.82	.04	3.69	.07	3.69	.07		3.29b	.06
	Exist	2.64	.76	3.37	.76	3.33	.83	3.53	.76	3.74	.75	3.71	.89	3.67	.72	3.92	.65	3.77	.63	3.77	.63	1.17	3.53	.51
e	None	2.56	.76	3.02	.74	3.75***	3.05	.89	3.23	.73	3.21	3.39	.70	3.49	.63	3.77	.70	3.67	.67	3.67	.67		3.30	.46
	Exist	2.69	.75	3.30	.76	3.35	.80	3.45	.77	3.69	.80	3.72	.84	3.67	.71	3.90	.68	3.70	.70	3.70	.70		3.50	.49
f	None	2.53	.77	1.70	3.13	.78	1.75	3.07	.91	2.60**	3.43	.74	2.26*	3.50	.64	3.80	.67	3.75	.61	3.75	.61	-59	3.35	.50
	Exist	2.61	.77	3.20	.77	3.24	.86	3.42	.75	3.62	.77	3.78	.81	3.26***	3.46	.74	3.91	.64	3.70	.65	3.70	.65	-1.06	3.45
g	None	2.62	.74	3.26	.76	3.09	.90	3.51	.76	3.44	.67	3.37	.85	3.46	.74	3.63	.76	3.70	.69	3.70	.69		3.34	.56
	Exist	2.60	.76	3.26	.79	3.20	.91	3.43	.75	3.61	.73	3.72	.86	3.60	.69	3.90	.65	3.74	.68	3.74	.68		3.45	.52
h	None	2.61	.76	3.12	.71	3.30	.78	3.46	.75	3.52	.79	3.68	.80	3.58	.67	3.77	.73	3.72	.62	3.72	.62		3.40	.47
	Above university graduate	2.60	.77	3.27	.74	3.27	.89	3.40	.68	3.60	.82	3.66	.83	3.60	.68	3.83	.65	3.72	.71	3.72	.71		3.45	.50
i	Less than high school	2.60	.75	3.14	.80	3.14	.86	3.39	.80	3.55	.67	3.74	.83	3.57	.67	3.88	.69	3.73	.61	3.73	.61		3.40	.49
	Above university graduate	2.57	.78	3.24	.77	3.21	.88	3.35	.63	3.58	.81	3.66	.95	3.57	.69	3.80	.67	3.69	.77	3.69	.77		3.42	.52
j	Less than high school	2.62	.75	3.19	.77	3.19	.87	3.47	.80	3.57	.71	3.73	.76	3.59	.67	3.88	.67	3.74	.59	3.74	.59		3.43	.48
	High	2.90a	.80	3.64a	.78	3.69a	.76	3.60a	.76	4.08a	.64	4.06a	.80	3.98a	.65	4.20a	.60	4.11a	.61	4.11a	.61		3.80a	.43
k	Medium	2.47b	.66	11.57***	3.13b	.64	27.80***	3.11b	.75	28.19***	3.50ab	.72	4.47*	4.08b	.62	47.23***	3.71b	.77	17.59***	3.53b	.60	30.25***	3.77b	.70
	Low	2.42b	.72	2.89c	.64	2.85c	.80	3.29b	.74	3.51c	.66	3.38c	.79	3.29c	.68	3.58b	.58	3.40c	.62	3.40c	.62		3.14c	.39
l	High	2.90a	.08	3.48a	.08	3.56a	.09	3.53a	.09	3.91a	.07	4.41a	.07	3.81a	.07	4.08a	.06	4.06a	.06	4.06a	.06		3.75a	.05
	Medium	2.57b	.07	12.83***	3.19b	.07	10.58***	3.15b	.08	13.13***	3.47ab	.07	2.18	3.51b	.07	15.62***	3.60b	.06	93.17***	3.63a	.06	11.55***	3.79b	.06
m	Low	2.30c	.08	2.93c	.08	2.88c	.10	3.28b	.09	3.28b	.10	3.02c	.08	3.30b	.08	3.66b	.09	3.50b	.08	3.50b	.08		3.11c	.06
	High	2.70a	.82	3.39a	.71	3.45a	.86	3.42a	.81	3.67a	.81	4.05a	.83	3.75a	.71	3.98a	.69	3.75a	.78	3.75a	.78		3.60a	.47
n	Medium	2.63ab	.71	2.25	3.14a	.74	2.34	3.12b	.84	3.24	3.45a	.71	.58	3.54a	.69	.72	3.79a	.64	1.78	3.69a	.62	69	3.37b	.47
	Low	2.42b	.80	2.21a	.88	3.24b	.93	3.47a	.80	3.62a	.83	3.47b	.97	3.54a	.76	3.88a	.73	3.81a	.59	3.81a	.59		3.40b	.55

Note. 1) ① Time management ② Academic performance ③ Goal attainment ④ Citizenship behavior ⑤ Communication ⑥ Family relationship ⑦ Social relationship ⑧ Image management ⑨ Conflict resolution ⑩ Total ⑪ Sex ⑫ Grade ⑬ Academic grade ⑭ Experience of leader ⑮ Experience of leadership education ⑯ Experience of propriety education ⑰ Mother's employment status ⑱ Father's education ⑲ Self efficacy ⑳ Emotional intimacy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㉑ Perceptiveness to standard of living ㉒ Each variable consists of three groups including high (above M+ (SD/2)), medium (M - (SD/2)~ M+ (SD/2)), and low (below (M - (SD/2)))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5. **p < .01. ***p < .001.

2. 청소년의 예 리더십, 행복감의 일반적 수준

청소년의 예 리더십과 행복감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예 리더십 전체 평균은 3.43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약69점)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미지관리, 갈등해결, 가족관계, 사회관계, 커뮤니케이션, 시민행동, 학습수행, 목표달성, 시간관리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스스로를 관리하는 수기적인 측면에 비해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수행이 더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하기 보다는 아직까지 가정과 학교의 시스템 하에 기성세대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정해진 원칙과 규율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관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치인리더십 부분의 수행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스스로 인생에 대하여 주체의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경영하는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신뢰와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요구된다. 특히 시간관리 영역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시간관리 능력이 낮음을 보고한 선행연구[9]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감은 평균은 3.39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약66점)의 저조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54.1점[1], 64.1점[37]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행복감 상승을 위한 제반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예 리더십

청소년의 배경변인에 따라 예 리더십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의 성적, 리더경험유무, 리더십교육여부, 자기효능감, 모-자녀간 정서적친밀도,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라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성적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에 비해 중이나 상이라고 인지하는 청소년인 경우, 리더의 경험이 있는 경우, 리더십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더 예절바른 리더로서의 모습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와의 정서적친밀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풍족하다고 느끼는 집단의 청소년일 때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예절[28], 자기효능감과 리더십[42] 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청소년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지지가 요구된다. 또한 모-자녀간 정서적친밀도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는 부모-자녀 간 갈등

이 증폭되는 시기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정서적친밀도가 높을 때 청소년기 자녀의 예절수행이 높아진다고 한 선행연구[28]와 같이 예절이나 리더십 같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 따라서 청소년기 모델링의 과정이 중요[4]한 만큼, 어머니가 먼저 예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는 솔선수범을 행할 때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이 더욱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크게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객관적인 소득상태와 달리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상대적 생활수준이 정적으로 나타남을 볼 때, 심리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지닐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제공해 줄 때 보다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고 타인에 대한 수용성도 확대됨을 엿볼 수 있다.

4. 청소년의 예 리더십과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예 리더십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예 리더십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체 예 리더십과 행복감 간의 관계는 .7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요인은 목표달성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예 리더십의 실천을 수행할수록 행복감의 지수도 상승됨을 볼 때, 주지주의 학습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가정과 학교에서 바람직한 예절 규범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양심에 떳떳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과 인정을 받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성부분에 관심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보다 더 심리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이끌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목표달성과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청소년 스스로 눈높이에 맞는 목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행복을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시사한다. 이는 행복감이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와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믿음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18]이니만큼, 기성세대의 바람이 반영된 예 리더십의 특성상 이러한 역량의 수행이 자연스럽게 행복과 연결된 것이라 사료된다. 일찍이 공자가 예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도덕적 실천이 바로 즐거움의 요체라 언급하며, 예를 익힘이 곧 즐거움이고 예를 나눔이 곧 기쁨이라 하였다[43].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갖춘 드러냄이 곧 긍정적 결과를 산출함을 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교양을 갖추며 도덕적으로 살면서 즐거운 행복을 바라는 것이 모순일 수 있으나, 때로 불편할 수 있는 유희를 뿌리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의식할 때 영혼의 만족과 평화의 상태에 있는 자신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nner leadership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Variable	Time management	Academic performance	Goal attainment	Citizenship behavior	Communication	Family relationship	Social relationship	Image 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Total
Happiness	.44**	.40**	.60**	.22**	.57**	.55**	.55**	.46**	.48**	.72**

** $p < .01$.

속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21]는 칸트의 견해를 빌어볼 때, 예 리더십 같은 바람직한 생활규범의 준수는 최고선이라는 개념 하에서 행복과 분명한 결합(combination)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5. 청소년의 배경변인, 예 리더십 및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이 학년($\beta = -.15$), 자기효능감($\beta = .24$), 모-자녀간 정서적친밀도($\beta = .11$), 시간관리($\beta = .14$), 목표달성($\beta = .22$), 커뮤니케이션($\beta = .25$), 가족관계($\beta = .16$)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64%였다. 이 중 예 리더십의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Figure 3과 같이 인과모형을 도식화했으며,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과효과를 Table 8에 요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beta = -.15$)은 배경 변인 중에서 행복감에 부적인 직접효과만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다. 학

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1, 37]와 달리 본 연구는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행복하다고 나타났다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 고를 집단화하여 구분한 결과에 원인이 있으므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 고교생활에 적응을 필요로 하는 고1에 비해 오히려 고2가 정서적으로 안정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자기효능감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총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자녀간 정서적친밀도는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로 인해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두 변인이 예 리더십을 우회하기도 하나 시간관리, 목표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족관계를 경유하여 행복감에 이르는 인과모형을 구성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 등의 심리적 특성을 예 리더십의 형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행복도가 증진됨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 중에서는 시간관리, 목표달성, 커뮤니케이션, 가족관계의 예 리더십 역량이 행복감과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분명 목표는 학생 스스로

Table 7.
Regression analysis of causal model

	Manner leadership									
	Time management		Goal attainment		Communication		Family relationship		Happiness	
	B	β	B	β	B	β	B	β	B	β
Grade									-.16	-.15***
Experience of leader					.25	.17**				
Education level of father							-.05	-.15**		
Self efficacy	.30	.22***	.53	.35***	.61	.46***	.40	.27***	.23	.24***
Emotional intimacy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24	.27***	.26	.27***	.15	.18***	.51	.55***	.07	.11*
Perceptiveness to standard of living							.14	.12*		
Time management									.10	.14*
Goal attainment									.14	.22***
Communication									.19	.25***
Family relationship									.11	.16**
Constant		.75		.47		1.25		1.52		.61
R ²		.15		.24		.34		.49		.64
F		21.43***		36.99***		40.63***		56.10***		53.30***

Note. 1) Dummy variable: Grade - 0: second year student, 1: first year student 2) Dummy variable: Experience of leader - 0: none, 1: exist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Causal effect

Variable	Correlation coefficient	Causal effect			Noncaus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Grade	-.16	-.15	-	-.15	-.01
Experience of leader	.17	-	.04	.04	.13
Education level of father	.01	-	-.02	-.02	.03
Self efficacy	.58	.24	.16	.40	.18
Emotional intimacy between mother and adolescent	.46	.11	.24	.35	.11
Perceptiveness to standard of living	.19	-	.02	.02	.17
Time management	.44	.14	-	.14	.30
Goal attainment	.60	.22	-	.22	.38
Communication	.57	.25	-	.25	.32
Family relationship	.55	.16	-	.16	.34

의 열망과 성취를 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경쟁적 요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야기[51]할 수 있으나 이를 달성할 경우 행복감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또한 시간관리를 잘 할 때 스트레스와 역할혼미 지각과 역할행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Macan 외[46]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시간관리 능력이 우수한 청소년일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행복은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하나 행복을 위한 자신의 계획과 노력 등 일련의 과정 그 자체가 행복감을 상승시키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행복을 유도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관계의 매개체로서 서로의 의미를 소통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 간에 원활한 관계 속에서 상호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때 행복감이 증가된 것은 한국인들은 개인적 목표달성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정이나 유대감 같은 정서적 경험이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한 선행연구[39]를 지지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5]의 연구에서도 가족 안에서의 경험이 행복으로 연결됨을 볼 때 청소년의 가장 근접한 미시체계인 가족 간의 관계성은 청소년의 행복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 있어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며 건강한 가정생활 속에서 주위 사람들과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을 발휘할 때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리더경험과 부의 학력, 생활수준인지도도 커뮤니케이션과 가족관계를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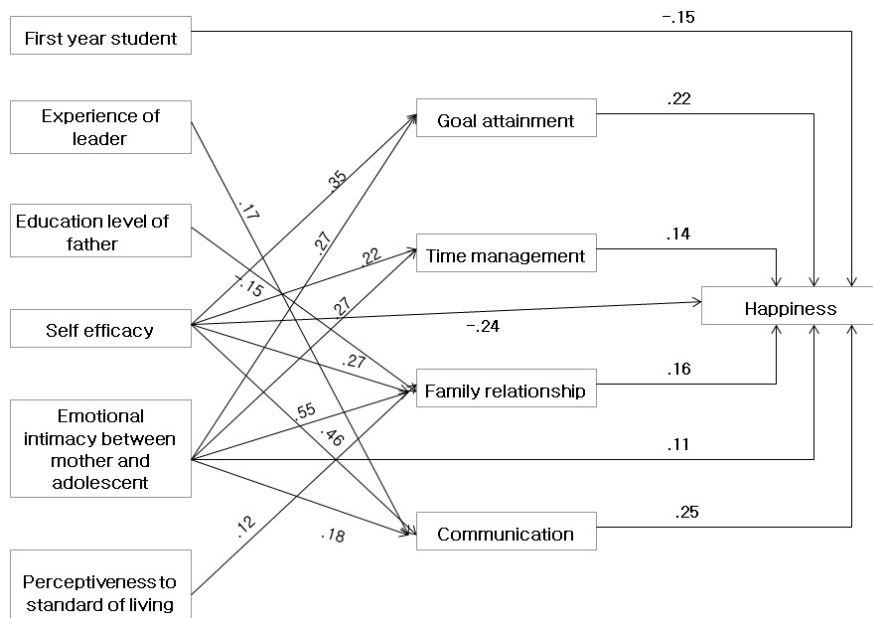


Figure 3. Measure model on manner leadership of adolescents.

기 행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과의 조합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변인으로 검증된 시간관리, 목표달성, 커뮤니케이션, 가족관계 등의 예 리더십을 실천적 규범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보다 더 행복한 성공의 경험을 영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한 예 리더십(禮 Leadership) 모델연구’의 결정판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동양의 예절과 서양의 리더십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에게 적합한 새로운 한국형 리더십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학제적 연구의 초기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형 리더십 연구에 관심을 갖고 지혜인 리더십[47] 등 일련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가정학에 토대를 둔 리더십의 통합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실천적, 통합적 성격을 지닌 가정학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영역에 일조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인성적 역량인 예 리더십이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이론적 초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예 리더십의 척도개발 과정은 문헌고찰, Focus Group Interview, 생태학적 접근에 의한 예와 리더십과의 실증연구, 전문가 대상의 내용타당도 검증, 청소년집단의 개별인터뷰, 설문조사,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등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완성하였다. 연구결과, 예 리더십은 수기와 치인 두 부분으로 대별하였으며 각각 수기리더십 부문에는 시간관리, 학업수행, 목표달성, 시민행동이, 치인리더십 부문에는 커뮤니케이션, 가족관계, 사회관계, 이미지관리, 갈등해결의 총 9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또한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수용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로써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예절바른 청소년 리더’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던 본 연구의 목적을 일부분 달성하였다. 다음 이렇게 개발된 예 리더십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이 과연 행복한가라는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변인, 심리적변인, 예 리더십,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변인을 탐색한 결과, 학년, 자기효능감, 모-자녀간 정서적친밀도, 시간관리, 목표달성, 커뮤니케이션, 가족관계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직접

적, 간접적 인과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선행연구[1, 37]와 같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공적인 차원보다는 사적인 차원으로 간주되어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결과 청소년기는 수기적인 측면보다 치인적인 측면에서 더 큰 수행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복감과의 관련성도 높은 만큼 아직까지 기성세대의 몫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그 교육의 콘텐츠 중 하나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9가지 주제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가정적 차원에서는 부모 스스로 가정CEO의 마인드를 갖고[31] 자녀 스스로 미세발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예절이나 리더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28, 29]을 고려할 때, 역할모델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전인적 인재양성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동인(動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청소년 예절이나 리더십의 긍정적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들[17, 49, 55]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한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수기리더십의 수준이 치인리더십에 비해 낮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관이나 교사의 교육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초 의욕적인 연구 기대와 수행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남는다. 지표개발이란 원칙적으로 완벽으로 가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예절과 리더십을 통합한 학문적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인성강화란 측면에서 가정학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학제적 연구를 시도한 연구이나 보다 객관화된 사회지표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서적 개념을 품은 ‘예로운 청소년 리더의 양성’이라는 교육적 방안을 수립하고, 이러한 단계가 곧 청소년기 행복으로 가는 교육적 설계과정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위해 밝혀진 요인들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기대하는 예 리더십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주제와 모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예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진로발달, 리더포부 등의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성숙도, 대인관계 향상 같은 관계적 차원의 역

량이 강화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이론적-실천적 차원이 연계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립되기를 소망한다.

Reference

1. Ahn, D. H. (2012). A study on happiness of adolescents in Korea and Chin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1), 227-255.
2. Alfermann, D., & Stoll, O. (2000). Effects of physical exercise on self-concep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1(1), 47-65.
3. Ban, K. W.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roblem behavior and youth's leadership life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4. Bandura, A. (1967). The role of modeling processes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 W. W. Hartup & N. L. Smothergill (Eds.), *The young child* (pp. 42-58).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5. Berardi, A. J. (2003). *Qualifications of servant leader*. (D. Y. Lee, Trans.). Seoul: Siaa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6.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7.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Y: Russell Sage Foundation.
8. Choi, C. W. (2001).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9. Chung, H. S. (2009). *The role of underlying variables in adolescent's time-management ability, self-management and its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10.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son Wadsworth.
11. Covey, S. R. (1991).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Utah: Franklin Covey Company.
12. Deci, E. L., La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 (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313.
13. Easterlin, R. A., & Angelescu, L. (2009). *Happiness and growth the world over: Time series evidence on the happiness-income paradox*, IZA Discussion Paper No. 4060,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Bonn: Germany.
14. Fordyce, M. W. (1983). A program to increase happiness: Further stud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4), 483-498.
15.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ing-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16. Gilligan, T. D., & Huebner, E. S.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ait-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49-1155.
17. Ha, M. H. (2010). *Analysis of etiquette awareness and practice and needs for etiquette education in school: With a focus on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18. Han, M., Choi, I. C., Kim, B. J., & Lee, H. J. (2011). Cultural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eonju, Korea.
19. Heo, S. Y. (2009).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 Jang, H. S., & Han, J. L. (2008). The effects of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attachment with parents on their leadership life skil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1), 207-226.
21. Kang, J. H. (2012). On Kant's conception of happiness.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58, 21-41.
22. Kang, S. Y. (2000). *A study on the manner awareness and manner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girls' high*

-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3. Kim, D. J. (1997). *Introduction to practice good manners*. Seoul: Kyomunsa.
 24. Kim, G. S. (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25. Kim, H. J. (2009).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implement of manners and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26. Kim, H. S. (2010).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youth leadership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27. Kim, H. S. (2010). *A study of gratitude moderating model on adolescent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28. Kim, K. A. (2003). *Adolescents' bequeathal of implementation of manners between generations and strengths of family life: Focused on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9. Kim, K. A. (2008). Case studies on the leadership of mothers who brought up leade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7), 21-33.
 30. Kim, K. A. (2010).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for adolescence II 'volunteer work and leadership: Wisdom leader'.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8(2), 147-163.
 31. Kim, K. A. (2010, May). Parent'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family · manner Implementation and self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47th Annual Convention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Seoul, Korea.
 32. Kim, K. A. (2012). The influence of teachers' servant leadership on manners of adolescents: Focused on the positive thinking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3), 53-76.
 33. Kim, K. A., & Jang, H. J. (2010). The Influence of adolescent self-leadership and manner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8(6), 143-156.
 34. Kim, K. M. (2010). Correlates of happiness and self-acceptance promotion in college counsel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sychology*, 22(3), 863-883.
 35. Kim, M. K.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0), 1-34.
 36. Kim, M. S., Kim, H. W., Cha, K. H., Lim, J. Y., & Han, Y. S. (2003).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2), 415-442.
 37. Kim, S. Y., & Baek, H. J. (2008).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6), 140-173.
 38. Konu, A. I., Lintonen, T. P., & Rimpelä, M. K. (2002).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children's general subjective well-being. *Health Education Research*, 17(2), 155-165.
 39. Koo, J. S., & Kim, U. C. (2006).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2), 77-100.
 40.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2, November). Home economics, talk about character education. Oral and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52th Annual Convention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Seoul, Korea.
 41.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Scientific inquiry of happiness*. Seoul: Hakjisa.
 42. Lee, C. S. (2004) *A structur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youth leadership skil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43. Lee, H. Y. (2011). The concept of happiness in the Eastern philosophy. *Journal of Eastern and Western Thought*, 11, 79-100.
 44. Lee, J. S. (2012), Research on Sasojeol's youth etiquette education theory.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20, 195-236.
 45. Lee, S. M. (2006). *The basis of factor analysis*. Paju: Kyoyookbook.
 46. Macan, T. H., Shahni, C., Dipboye, R. L., & Phillips,

- A. P. (1990). Collage students' time management: Correlation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str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760-768.
47. Moon, H. N., & Son, K. W. (2007). An empi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of Korean style leadership program: Focusing on 'Wise man leadership course'. *The Journal of Sookmyung Global Leadership*, 6, 143-174.
48. Morgan, D. L., & Krueger, R. A. (1993). When to use focus groups and why. In D. L. Morgan (Ed.), *Successful focus groups: Advancing the state of the art* (pp. 3-9). Newbury Park, CA: Sage.
49. Nam, K. Y., & Kim, K. A. (2011).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leadership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85-113.
50. Naver Korean Dictionary. (2012). Happiness. Retrieved July 30, 2012 from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2028100>.
51. Ng, Y. (2002). The East-Asian happiness gap. *Pacific Economic Review*, 7(1), 51-63.
52.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69(4), 719-727.
53. Seligman, M. E. P. (2006). *Positive psychology*. (I. J. Kim, Trans.). Anyang: Mulpure.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54. Seok, N. J. (2012, May 5).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the least satisfied with their lives in the OECD. *Chosun Ilbo*. Retrieved August 9, 2012 fr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05/2012050500012.html.
55. Son, H. J. (1998). *Influence of the manners education program impacts on school lif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56. Son, K. W. (2006). *A study on new paradigm of management: Schemes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western management by means of Korean man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57. Sung, W. K. (2010). *The effect of youth's self-leadership and the type parent's commitment to study on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58.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 4-69.
59. Wilson, W. R.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4), 294-306.

접 수 일 : 2012년 10월 15일

심사시작일 : 2012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8일